한국신약, 천연 천식치료제 상품화!

한국생명공학연구원, 목련꽃 항천식제 기술이전 … 수입대체 효과 기대

한국생명공학연구원(원장 양규환)이 개발한 천연천식치료제 기술이 제약기업에 이전돼 제품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.

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신약(대표 한만우)이 자목련 꽃봉오리인 <신이 관련 항천식제 개발>에 관한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.

생명공학연구원은 계약에 따라 한국신약에 해당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으로 생산·판매할 수 있는 실시권을 부여하고 한국신약으로부터 선급 실시료 3억원과 매출액의 2%를 받게 된다.

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형규(49) 박사팀이 과기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 G7로 추진해 개발한 신이 관련 약제는 스테로이드제나 평활근이완제 등 기존 천식 치료제와는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천식 증세를 근원적으로 개선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

연구에는 한국신약 자광연구소도 참여했다.

신이를 이용한 항천식제는 현재 아산중앙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인 3상 시험을 거치고 있다.

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3-4년 안에 연간 300억원대의 관련약품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2/25>